

# 문화예술 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윤희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문화예술전공

## A study on the effect of arts and culture attendance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Yun-Hyea Cho

College of Liberal Arts Culture and Arts Major,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 활용 중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천안지역 대학생들의 전반적 문화예술관람 태도에 따른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정착 및 대학생들에게 맞는 문화예술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경우 학업부담, 학자금, 취업 등으로 삶 자체와 자존감을 느낄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긍정적 측면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지속가능하게 확장성을 가질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의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만족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기회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면 자아존중감 향상 및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w much viewing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during leisure activities affect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did not directly affect self-esteem or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differed from those showing that bo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ncrease whe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crease. Second,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mproving self-esteem increases life satisfaction means that the higher the intention to evaluate oneself positively and respect oneself, the more one is satisfied with one's life. Considering tha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contribute to improving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individual life if a plan is prepared for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at can enhance their self-esteem.

**Keywords** : Culture and Arts,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Cultural and Artistic Viewing

본 논문은 2022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un-Hyea Cho(Namseoul Univ.)

email: vivarts@nsu.ac.kr

Received January 4,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February 28,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 1. 서론

### 1.1 문제제기

여가활동은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적 여유의 증가와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기인한 개인의 휴식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여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특히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간의 자유 시간이 증대되어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도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및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거로 헌법적 가치인 '인간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영위권'을 규정하고 있듯이 여가활동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문제로 제기되었다. 늘어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인간의 자아가 점진적으로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여가는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나 갈등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업무를 도모할 수 있는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휴식활동을 가리킨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여기는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게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에서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문화예술 활동이다. 문화예술은 미술,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공연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보거나 듣는 등 간접적 참여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행동이다.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 성숙을 이루고,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목적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참여하거나 관람하는 활동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 경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므로 사회적 소통의 기초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복합적이면서 풍부한 감각적 자극을 촉발하여 뇌의 중추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치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발견이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밝고 긍정적인 사고관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실버세대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우울과 자살을 낮추는 데 효과 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21년 문화예술 활동 참여율은 8.2%로 '19년의 16.7%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3]. 이와같이 문화예술활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코로나와 디지털 문화의 지속적 발전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 1.2 연구목적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참여나 관람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문화예술 활동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어떠한가와 같은 논의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활동의 다층적,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활용 중 문화예술 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천안지역 대학생들의 전반적 문화예술관람 태도에 따른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바른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정착 및 대학생들에게 맞는 문화예술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은 문화와 예술의 복합어로 주로 사용되며,

문화와 예술의 개념 중 문화라는 개념이 소극적으로 쓰인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은 예술을 포함하는 전문분야나 혹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문화예술분야라고 해야 한다[4]. 문화와 예술을 상호유기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 영역을 구분해 보면, 예술영역으로 미술, 건축, 사진 등의 조형예술, 무용, 연극, 음악 등 공연예술로 구성되어 있다. 연예와 같은 대중문화 영역도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문화영역으로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생활문화의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문화산업에 모바일 문화콘텐츠, 영상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발전상을 반영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또한 생활문화는 음식, 주거, 복식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예술의 범위가 실생활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활동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해독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5]. 민족이나 국가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삶의 터전과 양식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문화는 그 문화구성원들의 의식, 태도, 가치관 등에도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문화와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화적 실천을 의미한다[6]. 한편 예술은 미적 대상을 향한 활동을 의미하며, 미적 경험을 유발함으로써 정서함양과 회복의 측면에서 교육의 유익한 도구라는 가치를 지닌다[7]. 일반적으로 예술 활동은 인간의 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다양한 예술 기법, 예술적 표현형식을 통해 표출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또 향유할 것인가와 같은 능력을 제고하는 활동도 아우르는 개념이다. 예술 활동의 참여자는 다양한 예술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며, 미적 경험의 축수인 예민한 감수성, 즐거움을 느끼는 감성적 가능성[8,9]을 길러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는 개별 장르나 기법, 형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술이 탄생한 맥락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 일상생활, 여가 등이 접철되고 축적되어 나타난 문화활동은 다루는 범위가 순수 예술영역, 일상의 여가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10].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와 예술의 두 개념 간 통합점과 연결점을 형성하여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의 측면에서는 기

존의 소수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만의 전유물도 아니며, 문화의 측면에서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리터러시(cultural literacy) 및 전통, 현대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6].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된 경험이자 실천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서로 상호 연동되어 승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의 정서적, 정신적 측면을 한층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구성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는 활동도 내포하는 개념이다[8-11].

또한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자아정체성 실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형식교육의 장으로 일반적인 예술의 범주 안에 드는 미술, 음악, 연극, 시, 소설 등의 참여와 향유, 주제적, 객체적 활동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으로 문화예술 관람과 문화예술 참여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람은 교양 함양을 위해 전시회, 박물관, 음악연주회 등을 관람하는 행동을, 문화예술참여는 문화예술 공연, 창작활동, 미술, 연주 등에 직접 참여하는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과 문화예술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3].

## 2.2 자아존중감

자아란 평가적 측면에서 자신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목표의 성취나 과제의 수행을 통해 형성된다. 자아 개념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가치적 신념인 것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평가를 전제로 한 정의적 반응이다. 자신 스스로 가치와 능력에 대해 능동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자아존중감은 윌리엄 제임스(1890)에 의해 처음 언급된, 자아의 하위 개념이다. 그는 자아를 주제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로 분류하였는데,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반영하는 사회적 자아가 자아존중감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로젠버그는 자아존중감을 자기가치감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아존중감의 척도를 개발하였다[12].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81)의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 자아존중

감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지속되는 평가를 중점에 두고 형성되며, 둘째,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경험 또는 역할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와 같이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은 총체적, 가정적, 학교적, 사회 동료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된다. 즉,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소중하면서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로젠버그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 자아존중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2].

오늘날 자아존중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심리 치료의 하나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심리 정서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내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 증진을 위한 정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자아존중감은 환경의 요구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식한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의욕이 높지 않고 환경의 요구에 대한 적응 정도 또한 높지 않다.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며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므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불행하다고 느끼기 쉽다. 이렇게 볼 때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3 삶의 만족도

일반적으로 생활만족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만족, 행복감 등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생활만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생활만족도는 노인생활지표를 개발한 이후부터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생활만족이란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주위환경에 잘 적응함으로써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이 개인적 자율성, 신체적·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

회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능력, 환경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았다[14].

생활만족도를 현재 및 미래 생활의 상태와 전망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생활만족을 현재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노인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느끼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갖고 낙천적인 생활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5].

오현숙(2003)은 생활만족을 자신의 삶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만족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16]. 또한 생활만족도란 개인의 주관적 안녕 또는 질적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과거,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 대한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개인 자신의 평가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에 대한 우월성을 지각하는 것, 생활 중 경험하는 신체, 정신, 경제적 측면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7].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다양한 개념을 종합해 볼 때, 생활만족도란 개인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자원으로 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개인의 기대와 현실적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이며,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니고 있는 감정 상태에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스스로의 종합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에 대한 긍정심의 정도를 가리킨다[18].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결혼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족과의 관계, 의사소통, 주거환경, 여가생활, 자아존중감, 자원봉사활동 등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과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문화예술관람 및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문화생활 및 삶의 만족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천안시 소재 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자 114명, 여자 110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48명, 2학년이 83명, 3학년이 51명, 4학년이 42명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3.2 연구가설 설정

- 가설1. 문화예술 관람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문화예술 관람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문화예술 관람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할 것이다

## 4. 연구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문화예술관람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변수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23.0을 이용하여 설정한 가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4.1 측정도구의 신뢰도

Table 1에서 살펴보면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선행연구에 활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문구는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구성개념의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Cronbach'

Table 1.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liability test

Variable	First number of items	Final number of items	Mean	SD	Cronbach's $\alpha$
Arts and Culture attendance	8	4	3.740	.739	.765
Self esteem	10	9	3.913	.725	.938
Life satisfaction	5	4	3.779	.785	.872

$\alpha$ )는 모두 0.7 이상이었다. 이를 기초로 추후 분석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4.2 요인분석에 의한 측정도구의 타당도 분석

#### 4.2.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을 이용하여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에 대해 요인의 주적재치가 .5이상이거나 부적재치가 .4를 넘는 항목을, 각 구성요인별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한 후, 전체 항목과의 상관관계수가 현저히 낮은 개별 항목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관람 관련 변수에서 4개, 자아존중감 1개의 변수를 삭제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이 요인분석의 실행에 적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rts and Culture attendance
I am confident in my assets	.899	-.085	-.008
I have something to brag about myself	.873	-.086	.008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self	.800	.035	-.054
I respect myself	.795	.079	-.046
I consider myself a useful person	.735	.030	.041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self	.720	.168	-.017
I think i'm a good person	.750	-.093	-.047
On the whole, I feel like a successful person	.681	.169	.049
Like most people, I can do my job well	.600	.110	.076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life	-.035	.898	.073
Even if I were to live my life again, I want to live it like it is now	.084	.666	-.063
Many situations and conditions in my life seem to be good	.219	.644	.072
So far I've done a lot of what I want	.252	.553	-.077
I prefer to go to the fair	.077	-.059	.894
I prefer viewing exhibitions (art, photography/architecture/design, etc.)	.024	-.118	.863
I prefer to attend music concerts (classical, opera, etc.)	-.055	.014	.585
I prefer to watch a dance performance	-.084	.243	.580

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Kaiser-Meyer-Olkin) 측도와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KMO값이 .913, 바틀렛(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853.862$ ,  $df=136$ ,  $p<.001$ )도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요인을 단순화하기 위해 요인추출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요인회전방법으로는 비직각회전의 하나인 프로맥스(PRO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값 .50 이상에서 회전한 결과, 초기 고유값이 1 이상 적재된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는 전체 변량의 68.70%를 설명하고 있었다.

#### 4.2.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요인 구조가 타당하지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 결과, 공차한계 .996, 분산팽창지수(VIF) 1.004, 왜도(skewness)는 절대값 기준 .034~.365, 첨도(kurtosis)는 절대값 .067~.623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나 정규성(normal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788~.914,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522~.702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는 확보되었다. 이론적으로 개념 신뢰도는 0.7, 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19,20]. 또한 표준화된 요인적재치가 0.5이하, 통계적 유의성이 1.965이하인 항목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항목도 발견되지 않아 측정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기초로 1차적인 타당도를 검증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재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CFI=.953, RMSEA=.067로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각 구성개념의 분산추출지수가 모든 구성개념의 상관관계수 제곱보다 커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9]. 본 연구에서 분산추출지수는 .568~.667, 구성개념의 상관관계수 제곱 값은 .177~.475로 나타나 상관관계수의 제곱값이 AVE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기본가정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판별타당도를 또 하나의 방법은 각 구성개념 간 95% 표준오차 추정 구간의 상관관계수가 구성개념 간 완전한 상관관계수를 의미하는 “1”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Anderson & Gerbing, 1991). 구성개념 간 동일하다는 가설( $\rho=1$ )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95% 신뢰구간의 값( $\rho+(2 \times S.E)=.150 \sim .795$ ,  $\rho-(2 \times S.E)=-.010 \sim .471$ )이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S.C. value	E.D.	AVE	CR
Arts and Culture attendance	I visit the exhibition	.782	.290	.568	.778
	I go to the fair prefer	.831	.255		
	I'm a music concert Prefer viewing(classical music, opera, etc.)	.622	.608		
	I dance prefer to watch	.677	.480		
Self esteem	About my assets have confidence	.836	.235	.687	.911
	I am generally being a successful person	.801	.300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self	.828	.247		
	I myself I respect you	.826	.279		
	with most people can work well together	.739	.249		
	Have something to brag about	.795	.336		
	About myself positive attitude Have	.832	.223		
	myself useful I think it's a person	.779	.314		
Life satisfaction	I am a good person I think	.693	.403	.667	.798
	Various situations and conditions are good same	.845	.219		
	In my life now Satisfies	.808	.258		
	A lot of things I want has been done	.795	.319		
	Even if I live like now want	.732	.471		

#### 4.3 가설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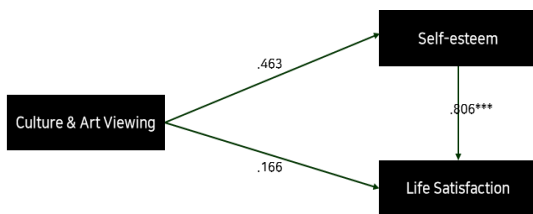
문화예술관람,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경우 유의미한 ( $r=.689$ ,  $p<.001$ )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문화예술관람과 자아존중감( $r=.421$ ,  $p<.001$ ), 문화예술관람과 삶의 만족도( $r=.468$ ,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술관람 자체만으로도 일정 부분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by factor

Item	Arts and Culture attendance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rts and Culture attendance	.568		
Self esteem	.421***	.687	
Life satisfaction	.468***	.689***	.667

\*  $p < .05$ , \*\*  $p < .01$ , \*\*\*  $p < .001$ .  
 각 요인별 대각선 행렬(이탤릭체 부분)은 분산추출지수임.

본 연구에서 개별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몇 개의 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게 된다. 적합도 지수로는 CFI, TLI, RMSEA, SRMR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1]. 일반적으로 SRMR은 .08 이하,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는 .90 이상, 그리고 RMSEA는 .06 이하일 경우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CFI의 경우 .90 이상, RMSEA는 .06 이하일 경우를 최소 기준 요소로 본다[21].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볼 때 본 연구의 모형은  $\chi^2=254.789$   $p < .001$ , GFI=.878, CFI=.944, RMR=.041로 비교적 우수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가정된 모델은 삶의 만족도의 80.0%, 자아존중감의 21.5%를 설명하고 있었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 결과이다.



\*  $p < .05$ , \*\*  $p < .01$ , \*\*\*  $p < .001$   
 $\chi^2=254.789$ ,  $df=116$ , GFI=.878, CFI=.944, RMR=.041

Fig. 1. Path analysis result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문화예술관람( $\beta=.463$ ,  $p < .001$ ), 자아존중감( $\beta=.806$ ,  $p < .001$ ) 모두 유의미한 예측변수가 되고 있었다.

Table 5. Path analysis result

Path		Route Coefficient	t-value	Verification result
H. 1-1	Arts and Culture attendance → Self esteem	.463	4.876***	select
H. 1-2	Arts and Culture attendance → Life satisfaction	.166	2.864**	select
H. 1-3	Self esteem → Life satisfaction	.806	11.934***	select

\*  $p < .05$ , \*\*  $p < .01$ , \*\*\*  $p < .001$ .

#### 4.4 매개효과 분석

앞의 경로분석 결과, 문화예술 관람은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 관람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문화예술 관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단순매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 분석은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분석에 기초하게 된다[20,22].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는 배런과 케니의 매개효과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세스(PROCESS)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헤이즈(Hayes, 2012)의 PROCESS 모델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매개된 조절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3,24]. 또한 PROCESS 프로그램에서는 소벨(Sobel) 검증,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방법의 결과물을 모두 제시하고 있어 여러 번의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PROCESS 모델에 의하면, 단순 매개효과는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모델 4를 이용하여 배런과 케니(Barron & Kenny, 1986)의 단계적 회귀분석, 소벨(Sobel) 검증,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신뢰구간을 통한 결과를 동시에 확인하였다. <Table 6>은 단순매개효과 분석결과이다.

문화예술관람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 검증한 결과, 부트스트랩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ediation effect by bootstrapping

Independent variable	Effect	Life satisfaction			
		<i>B(ab)</i>	<i>SE</i>	<i>LLCI</i>	<i>ULCI</i>
Arts and Culture attendance	Total effect	.497	.063	.373	.621
	Direct effect	.175	.047	.083	.267
	Indirect effect	.322	.044	.235	.408

## 5. 요약 및 결론

### 5.1 주요 발견사항

경제적 여유와 함께 대체휴일의 확대,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 등으로 여가시간의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여가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결과[3]에 따르면, 지난해 여가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2년 평일 3.3시간, 휴일 5.1시간으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우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활동을 얼마나 관람, 참여하는가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 활동이 증가하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경우 학업부담, 학자금, 취업 등으로 삶 자체와 자존감을 느낄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긍정적 측면은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나의 리터러시(literacy)로 자리 매김하는 인식 전환의 활동도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여가생활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전환하여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나면 하는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소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특별한 재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하나로 지각하는 활동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

이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요소 생활문화예술 참여 동기를 볼 수 있고, 생활문화예술 관련 정책에서도 참여자의 참여 동기에 대한 요소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활문화예술 참여 동기와 만족도가 참여자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생활문화 예술사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참여동기, 만족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의도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만족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었다[11,25].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은 자아존중감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조사하고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기준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을 본인의 직접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참여와 간접 활동인 관람으로 구분하면 조금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활동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생활만족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의 개별성과 연결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서비스나 자원 등의 격차를 줄이고 보편화된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03
- [1] S. J. Kim,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Adolescent Culture and Art Activities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oul: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7.
- [2] B. M Jang, *Effects of Literature-centered Convergence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cusing on the Operation Case of Kumdarak Saturday Culture School*. Seoul: Master's thesis at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2014.
- [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urvey on National Leisure Activities.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 [4] H. S. Lee,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 Seou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2011
- [5] H. M. Yang, *A study on how to create a policy base for the vitalization of cultural and arts education*. Seoul: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Research Report. 2004
- [6] Y. K. Seol,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ffect of aesthetic experience in education based o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eoul: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12
- [7] M. H. Kim, *cultural education theor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9
- [8] S. S. Kim, *The Role of Art Education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posal of Art Education for Restoration of Vitality*. formative education, 30, 1-20. 2007
- [9] K. N. Hwang., *A study on cartoons and animations for cultur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Contents Society, 4(1), 95-111. 2006
- [10] S. H. Kim. et al.,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cultural arts education*. Sejong: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4.
- [11] E. J. Kim, *A case study of music technology-based classes i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rograms*. Seoul: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ctoral Thesis. 2011.
- [12]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13]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 Pree. 1981
- [14]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61
- [15] S. B. Park, Subjective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Korean Government Association Academic Papers*, 244-266. 2012
- [16] H. S.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Elderly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Daegu: Daegu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03
- [17] I. K. Choi,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ypes of Leisure Activities in the Elderly*. Seoul: International Theologic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08
- [18] W. B. 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the Korean Elderly: Focusing on Activity Theory and Resource Theory*. Gyeongnam: Inje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2009
- [19] Fornell, C., &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1981 DOI: <https://doi.org/10.2307/3151312>
- [20] Bagozzi, R. P., & Yi, Y. (1998). On the evalu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DOI: <https://doi.org/10.1007/BF02723327>
- [21] Bentler, P. M., & Bonett, D. G.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 1980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88.3.588>
- [22]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3] Hayes, A. F.,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2012.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24] S. H. Jeong, D. K. Seo., *A method for verifying mediated moderating effects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using regression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5(1), 257-282. 2016
- [25] J. P.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elder abuse experience on psychological damage*.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5

조 윤 혜(Yun-Hyea Cho)

[정회원]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무용학사)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2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문화마케팅 (체육학박사)
- 2008년 3월 ~ 2020년 12월 :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2021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관심분야〉

문화예술, 공연기획